

‘미래교육체제, 무엇을 담을 것인가’

오늘 전북교육청서 국가교육회의·호남제주권 4개 교육청 ‘2030 교육포럼’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와 호남·제주권 4개 시도교육청(전북·광주·전남·제주) 공동으로 ‘미래교육체제,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제2차 ‘2030 교육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3일 오전 11시부터 전북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는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2030 교육포럼’은 국가교육회의가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준비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하는 연속기획 포럼으로, 지난 6월 27일 부산 이후 두 번째 행사다.

이번 포럼에는 교원, 학부모, 학생, 교육단체, 지역산업계, 대학,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 전국에서 모인 현장의 교육주체 및 전문가 15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총 14개 조로 나눠 ‘미래교육체제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심층 분임토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포럼에서 논의되는 7가지 주제는 ▲ 학제 개선 ▲ 학교와 지역의 새로운 관계 맺기 ▲ 미래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방향 ▲ 교수 학습과 학습 공간 ▲

중등진로직업 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교원역량 강화 ▲교육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학령기 인구 감소와 소규모 학교를 위한 정책 논의 등 지역 현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두 차례의 포럼 결과 등을 분석해 오는 10월 23~25일에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학교교육’ 세션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중장기 교육

계획 수립, 교육과정, 학제, 교원정책,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현장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과 새로운 제안을 미래교육체제에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은 “국가교육회의와 전북·광주·전남·제주교육청 등 지역사회의 교육전문가들이 모여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는 일인 만큼 국가교육회의와 4개 시도교육청이 이번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2030 미래교육체제를 수립함에 있어 학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베트남 동안폴리텍대학과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베트남 호찌민에 위치한 동안폴리텍대학과 국제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동차·기계분야의 기술 교류 및 단기 기술 연수, 공동교재 개발, 태권도과 같은 문화교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교류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 동안폴리텍대학은 2009년에 설립된 호찌민 신흥 기술전문대학으로 3000여명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와 학생 실습을 위한 4성급 호텔 건립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문대학이다.

이번 서명식에 참여한 타성태 동안폴리텍대학 총장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다양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이때에 베트남 남부와 한국의 남부에 자리한 두 기술대학이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비전대학교 박경민 국제교류팀장(자동차로봇학과 교수)은 “앞으로 비전한국어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및 문화교육 뿐 아니라, 각 학과의 실무 중심 교수법과 교육과정 등을 전수하고 교재교재를 제작하는 교두보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주비전대학교에는 16개국 250여명의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졸업 후 취업과 연결되는 뿌리반은 베트남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학생 성장 기록·현장지원 역량 높인다

도교육청, 전문성 신장 연수 진행

전북도교육청이 초·중등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담당자 및 현장지원단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를 갖는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이틀간 전주 그랜드 힐스 컨벤션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연수는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초·중등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담당자 28명과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 60명이 참석한다.

연수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의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고, 책무성 신장으로 학생부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해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학생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확대에 따른 성장중심 기록으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인식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초·중등 전체적으로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과 나이스 기능 개선,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연계방안, 학생성장이 반영되는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강화 등의 강의와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결과 분석 및 지원단의 컨설팅 사례 공유가 이뤄진다.

또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안내와 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2015개정 교육과정을 안내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면에서 현장지원단의 역량을 신장시키는 연수를 진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의 역량 제고로 컨설팅 활동을 내실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책무성 강화로 학생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컨설팅 우수사례 및 컨설팅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22일 오전 10시 삼성문화회관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인 듯 최선을 다하자!”

전북대 2018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성황리 마쳐
박사 136명 · 석사 336명 · 학사 1032명 등 1504명 졸업

전북대학교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22일 오전 10시 삼성문화회관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 및 학무위원, 이용규 총동창회장, 전임 총장, 졸업생 가족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136명을 비롯해 석사 336명, 학사 1,032명 등 총 1,504명이 학위를 받았다.

김동원 총장은 식사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겸손하고 최선을 다

하는 삶의 자세 등을 강조했다.

특히 김동원 총장은 “윈스턴 처칠은 어린시절엔 파퓰리즘을 당했고, 전쟁에선 포로로 붙잡혔으며, 선거에 나가면 낙선하기 일쑤였으나 좌절하지 않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됐다”며 “우리도 이처럼 불굴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무엇이든 이루지 못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소중하다”며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존중받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다”고 말을 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한 번 밖에 살 수 없으니 살아가는 동안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인 듯 최선을 다해 자신만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가스기술연구원 필요 기술 맞춤형 교육 ‘호응’

전북대 LINC+사업단,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대상 재직자 교육 실시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곽영호)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체 재직자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LINC+사업단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인 산업체 재직자교육은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임직원의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에서 필요로 하는 유가

스정 시추와 완결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부터 시추계획과 이수 프로그램 작성, 시추과정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케이싱 및 시멘트 과정에 대한 강의가 4일 과정으로 이뤄졌다.

강의를 맡은 전북대 이영수 교수(자연 에너지공학과)는 “이번 교육이 심부 석유 시추 능력 배양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LINC+사업단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